



#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일본 (주)후지경제가 지난 달 8일 발표한 "2011 필름용 고기능 재료의 시장 전망과 필름 메이커 전략"에 따르면 2010년 필름 시장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3,321억엔으로 2009년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되어 2자리수의 성장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특성을 균형있게 갖추고 있어 공업 재료, 포장재료, 자기 재료 등 넓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 PET 필름 가운데 FPD 용도는 편광판용 프로젝션 필름이나 백라이트 유닛용 기재필름(프리즘 시트, 반사 필름, 확산 필름, 렌즈필름)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 PET 필름 시장의 8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태양 전지 용도는 백시트 구성 필름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태양전지 시장의 확대에 연동해 구성 부재 재료인 PET 필름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태양전지 용도 PET 필름 시장은 2010년에 전년대비 2배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주)후지경제는 FPD나 태양전지 등 고성장 시장의 왕성한 수요에 따라 PET 필름

시장도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올해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3,583억엔으로 전망했으며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34.2% 증가한 4,456억엔을 예측했다. 특히 태양전지 용도는 연평균 2자리수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스플레이, 태양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필수 소재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린소재로 성장성이 큰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 PET 필름 업체는 1978년 SKC(주)가 PET 필름 사업을 시작한 것을 필두로 현재,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이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최대 PET 필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SKC(주)는 현재, 국내에 지난 해 대비 1개 라인을 증설, 총 14개 라인을 보유, 총 생산역시 2만톤이 증가한 120,000톤을 생산했으며 가운데 5만톤은 수출로, 7만톤은 내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 3개 라인을 보유하고 4만

톤의 PET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SKC(주)의 경우, 전체 PET 필름 생산량 가운데 1.7% 가량인 200톤을 연포장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열수축 외 특수포장용으로 1,600톤(13.6%) 가량이 쓰이고 있다.

SKC(주) 관계자는 현재 PET 필름 시장에 대해 2010년 대비 뚜렷한 전방 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저가 원부재료 사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2011년 초 TPA, EG 등 PET 원자재 양등에 따른 PET 메이커(Maker)간의 경쟁력이 하락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동남아, 인도, 중동 등 연포장용 증설 러시(rush)에 따라 수급 밸런스 해소 및 시장가가 급격하게 하락 중이라고 평가하고 전반적으로 2010년 대비 해당산업의 경기가 하락하고 원자재의 상승, 메이커 별 활발한 증설에 따라 PET 필름 시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초 광학용 PET 필름 라인을 완공한 SKC는 추가로 진천에 2개, 중국난통 지역에 2개, 미국에 1개의 총 5개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SKC는 일반 및 고급 광학용, 열수축, Photovoltaic Back Sheet(PVBS)용 PET 필름 메이커 업계 1위를 유지할 포부를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Globla Top 3 Maker」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장용의 경우 2% 이내, 광학용 및 산업용 PET 필름의 경우 5% 수준의 증가를 예상했다.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총 10개의 PET 필름 라인을 보유, 380톤/일을 생산, 136,800톤/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000톤을 수출했으며 73,600톤을 국내에 공급, 지난해에 비해 수출물량이 절반가량 줄어든 반면, 내

수량이 크게 늘었다. 도레이첨단소재의 PET 필름 가운데 포장용은 8% 가량에 불과하며 전체의 35% 가량을 BLU군으로 생산, 26% 가량은 그래픽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상반기 PET 필름 업계는 원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수요 현상이 일어났고, 각 업체마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재, 도레이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상반기에 올린 판매가격을 6월부터는 당초 가격으로 환원하는 등 업체마다 하반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 공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LCD 시장의 위축, 중국 시장의 긴축 정책, 인도산의 유입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국내 메이커들의 증설로 인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 재고는 늘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1985년 PET 필름 생산을 시작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PET 필름은 전체의 35% 가량을 포장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광학용과 산업용으로 각각 25%가량을 생산하고 기타용도로는 15%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9개 PET 필름 라인을 보유, 월 9,200톤 생산이 가능하며 지난해 110,400톤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57,600톤을 수출했으며 나머지 52,800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현재 중국, 두바이, 멕시코, 인도 등 해외 PET 필름 증설물량이 대량 등장하고 있는 PET 필름 업계는 공급과다로 인해 국제 가격이 2010년 대비 \$1.5 가량 하락하는 등 폭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LCD 및 태양광 수요의 감소로 후막필름 가동율이 저조하며 중/박막



[표 1] PET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수출	공급량	내수
SKC(주)	13	120,000(국내)	50,000	70,000	
	3	40,000(미국)	40,000		-
도레이첨단소재(주)	10	136,800	26,000	73,6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110,400	57,600	52,800	
(주)화승인더스트리	1	20,000	3,500	16,500	
(주)효성	1	19,000	4,000	15,000	

[표 2] 나일론 필름 수급 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수출	공급량	내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	7,200	2,600	4,600	
(주)효성	2	10,000	4,000	6,000	

공급량은 증가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수입 PET 필름의 국내 유입은 국내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기침체 속에서 소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올해 1% 가량만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오롱은 2012년 광학용 필름라인 1개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태양광용 라인 역시 1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가 예전처럼 복귀된다고 가정했을 때 LCD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2012년 이후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했다.

PET 필름라인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는 총 2만톤을 생산, 이 가운데 16,500톤을 국내에 공급하고 나머지 3,500톤을 수출했다. 전체의 25% 가량을 포장용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스템핑포일 18%, 라미네스 15%, 테이프 14% 등으로 활용폭이 넓다. 국

제 포장용 PET 필름 단가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업계 침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화승인더스트리 관계자는 국내 시장 또한 수입 필름 유입으로 인해 저가필름 위주의 필름 시장이 잠식되어 있다고 판단, 필름 판매가격 인하속도가 빨라 PET 필름 업계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PET 필름 시장에 대해서는 원료가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PET 필름 판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필름 수요처에서 가능한 재고 보유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수입 필름 영향으로 국내 PET 필름에 대한 수요 급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하반기부터 PET 필름, 특히 포장용 업체의 가동을 저하가 예상되어 매출 및 수익성 감소폭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주)효성은 1997년부터 PET 필름을 생산,

현재 1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9,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15,000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4,000톤을 수출하고 있다.

효성의 경우 전체 PET 필름 가운데 77% 가량을 포장용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산업용으로 18%, 기타 5% 가량으로 쓰이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PET 필름 업계에 대해 LCD 시장의 침체로 광학용 필름 수요가 부진한 상태지만, 향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효성은 광학용 필름과 산업용 필름 라인을 각각 1개씩 증설 중이며 올해 PET 필름 시장은 약 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가운데 NYLON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와 (주)효성으로 각각 2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1991년 나일론필름 생산을 먼저 시작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7,200톤을 생산, 이 가운데

2,600톤을 수출하고 4,600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이는 지난 해 2,800톤을 수출하고 4,400톤을 국내 공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수출 물량이 늘어난 반면 국내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중국의 나일론 필름 수요가 급감하면서, 해외 메이커(Maker)의 생산중단이 속출했다”며 “국내는 소비위축, 재질 변경 등 2009년 대비 15% 가량 수요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효성은 1996년부터 나일론 필름을 생산했으며 2004년 라인을 증설, 현재 총 2개의 생산라인을 보유 중이다.

총 생산능력은 10,000톤으로 이 가운데 4천톤을 수출하고 6천톤을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효성은 나일론 필름 시장의 경우 국내 시장 공급 과잉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고 판단, 올해 4%의 성장을 예상했다. ☐

##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1021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